

AMEPS 특별위원회 회의

2003년 9월 4일부터 2일간 중국 광둥성 동완시 퉁아일랜드 리조트 회의실에서 아시아EPS재활용협회연합(AMEPS)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AMEPS 사무국장 Mr. SUZUMURA(일본), 특별위원장 Mr. CHIONG(필리핀), Mr. LO(홍콩), Mr. APIWAT(태국), 최추섭 전무 그리고 옵서버로 Mr. KUMA(인도), Mr. YE(중국), 대만, 홍콩, 중국의 EPS 및 포장재 제조업체 대표 등 총 15명이었다. 회의는 회원 국가들의 주요 쟁점 보고, 국제EPS재활용연합(INEPSA) 참석결과 보고, 차기 AMEPS총회 개최계획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가별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 현황에 있어서는 한국 사례로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재활용책임제 등이 설명되었다. 대만은 200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가전제품 원충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재활용 책임 제도의 도입을 그리고 중국은 식품포장용기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내 EPS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사용 억제 시책이 한국, 대만, 중국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협의되었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각국 정부에 홍보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남미EPS재활용연합(ASAPEX)도 INEPSA에 정회원으로 참여

금년 4월 29일 미국 루이지아나에서 AFPR(북미), EUMEPS(유럽), AMEPS(아시아), ASAPEX(남미) 대표가 참석한 INEPSA회의에서 대륙별 EPS 생산 및 재활용 현황이 설명되었다. 옵서버로 참석한 ASAPEX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여 내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부터는 정회원으로 참석키로 하였다. ASAPEX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별 EPS재활용협회로 결성되었다. INEPSA 회의 특기사항으로 AMEPS 회원국의 EPS 생산량은

2002년에 160만 톤이며 재활용율은 56%이다. 이 같이 높은 재활용율은 EPS 다소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재활용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EPS 재활용율은 2001년에 13.1%였다. 유럽 지역의 EPS 생산량은 태평양지역으로의 관련 공장 이동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브라질 업계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세계자연보호기금(WWF)와 공동 노력을 검토하고 있다. INEPSA는 미국, 일본,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EPS 포장재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취합 증으로 차기 회의시 발표키로 하였다.

12월 인도에서 AMEPS총회 개최

차기 AMEPS 총회는 12월 3일부터 3일간 인도 고아에서 총회, 국가별 보고, 재활용세미나 등의 일정으로 개최키로 확정하였다. 재활용세미나에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남미 대표자들도 초청키로 하였다. AMEPS 10주년 기념 국제회의는 2004년 12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다.